

제42회 서울연극제 단막희곡 공모 심사평

서울연극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극인들이 겪게 된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지난해부터 단막 희곡 공모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당선작 <구명> (김지선 작)과 가작 <악셀>(김희연 작)이 올해 서울연극제 단막 스테이지를 통해 무대에 상연되었습니다. 단순히 수상 선정에만 그치지 않고 공연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작가와 배우, 관객 모두에게 가치 있는 경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올해 공모 역시 109편이라는 적지 않은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청춘과 일탈, 경제적 빈곤 등의 개인의 삶과 고뇌에 대한 이야기부터 고령화, 교육, 젠더, 환경과 과학 등 최근 사회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다원예술의 장르간 복합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희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작품도 많았습니다. 인물의 관계와 갈등보다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관념적인 대사를 남발하는 작품도 꽤 있었습니다. 난해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작품의 깊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간결하고 단순한 표현이 오히려 울림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맞춤법과 문장부호의 쓰임이 미숙한 작품도 더러 있었습니다. 말줄임표와 느낌표의 남발, 비속어 및 인터넷 용어의 남용 역시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희곡은 단순히 대본이나 텍스트가 아닌 문학의 한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들은 2주간의 예심을 통해 <그냥 있었어>, <인류의 미래는 거북이다>, <성난 파도 속에 앉아 있는 너에게>, <낮선 얼굴로 오는가> 이상 네 작품을 최종심사 대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냥 있었어>는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일상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치매 노인을 둘러싼 가족의 관계를 잔잔하게 전개해나가며 매끄럽게 담아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사건 없이 밋밋하게 진행되는 전개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 보완할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거북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문학성을 갖춘 작품이었습니다. 그

러나 다수의 인용한 대사들이 주제를 모호하게 만들고 오히려 관념 속에 매몰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희곡은 함축미와 절제된 언어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풀어내는 것이 연극 언어가 아니라 플롯과 인물설정, 인과관계의 의한 극성까지도 연극의 언어로 작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난 파도 속에 앉아 있는 너에게〉는 긴박한 사건 한 가운데에 인물들을 던져 놓음으로 발생하는 극적 긴장과 흥미유발이 매우 뛰어난 작품입니다. 캐릭터 설정과 상황에 대한 전후관계가 이해되도록 조금만 더 보완된다면 당장 공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극적인 사건전개를 보여주며 기대를 하게 만든 것에 비해 결말에 이르러 힘이 떨어지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매력적인 주제와 맞는 결말로 보완이 된다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선 얼굴로 오는가〉는 문학적 수준이나 연극적인 완성도가 단연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진부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를 세련된 플롯과 인물 설정을 통해 충실히 구현하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사건의 배경과 흐름을 따라가도록 전개가 적절했고 인물의 관계구축과 심리 묘사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낮선 얼굴이라는 상징과 화투라는 소재를 적절히 활용한 점도 매우 인상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함축적이며 절제된 언어사용 또한 작품을 빛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긴 논의를 할 것도 없이 만장일치로 〈낮선 얼굴로 오는가〉를 당선작으로, 〈성난 파도 속에 앉아 있는 너에게〉를 가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작가 모두 한국 연극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오래 가는 작가로 살아남길 바라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심사위원
김석주, 배진아, 정범철